



다구를 찾아서 44 허련

# 두 스승에게 차·그림을 배우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은 오원 장승업(1843~1897)과 더불어 19세기 조선 화단(畫壇)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대 최고의 서화가(書畫家)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자였다. 소치라는 호는 김정희가 원의 화가 대치 황공망(大癡 黃公望)을 본받았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허련은 진도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림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8세 때 해남 녹우당에 공채 윤두서의 그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윤두서의 후손 윤종민은 초의 선사의 소개로 찾아온 허련을 환대했다. 그리고 흔쾌히 <공재화첩(恭齋畫帖)>과 <고서화보(顧氏畫譜)>를 허련에게 빌려줬고 허련은 그것을 가지고 대흥사로 가서 모사(模寫)하기도 했다. 당시 대흥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초

사에게 허련의 그림솜씨를 칭찬하고 빨리 서울로 데려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허련은 김정희의 문하로 들어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서화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허련은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적에도 여러번 찾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림 공부를 계속했다. 그 와중에 김정희의 소개로 신관호, 권돈인 등과 교분을 쌓으면서 활발하게 그림을 그렸다. 허련의 나이 41세에는 현종계 입시(入侍)하여 서화를 품평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기도 했다. 김정희의 집에서 함께 수학한 여러 문인 등과의 교류 외에도 명문사대부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그의 예술에 폭과 깊이를 더해 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은 스승인 김정희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빼어난 그림 솜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허련 '기명도(器名圖)'. <한묵청연(翰墨淸緣)> 중이에 담재. 18.4×25.4cm, 개인 소장.

'기명도(器名圖)'는 <한묵청연(翰墨淸緣)>첩에 실려 있는 그림 중 하나이다. <한묵청연(翰墨淸緣)>은 1897년 허련의 나이 72세에 서울 전동 민영익의 집을 나오면서 신관호, 신관호의 아들인 신정희, 정건조, 민영익 등에게서 받은 시문과 1877년 남원 선원사 등에서 그린 자신의 그림을 합해 만든 서화첩이다. '기명도'는 배짱을 생략하고 차와 찻잔, 인장을 그렸는데 윤두서의 <공재화첩>에도 동일한 경향의 그림이 있다.

그림 속의 찻잔은 뚜렷한 병렬(氷裂) 문양이 보이며 차호는 중국 의흥에서 생산된 자사호로 보인다. '기명도'와 비슷한

의 선사는 허련의 재주를 아껴서 그에게 방을 내어 주는 한편, 김정희에게 소개시켜 줬다. 부드럽고 추상적인 남종화의 화풍을 평생 추구해온 그는 특히 산수화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는데, 구상된 독립과 자유로운 수묵구상을 특징으로 새로운 면모보다는 양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허련의 화풍은 그의 아들 미산 허형, 손자 남봉 허건, 그리고 의재 허백련 및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현대까지 계승돼 있고 호남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분위기의 그림 '청완도(淸玩圖)'에도 병렬이 뚜렷한 병과 찻잔이 보인다. 또한 '완당난화도(玩堂蘭花圖)'는 말년의 김정희가 난을 치고 있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난을 치고 있는 책상 위에는 청에서 수입된 채색 찻잔이 놓여 있고 화로 위의 제량호에서는 물이 끓고 있다. 이 채색잔은 조선 후기 청을 내왔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 유행했을 것이다. 당시 김정희는 청의 고종화와 지식인들과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에 청의 다구를 사용하며 청의 차를 마셨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젊은 시절에는 차의 대가이자 시서화에도 능했던 초의 선사를 스승으로 모셨고 뒤에는 김정희의 문하생이 되어 서화수업을 하였던 허련은 두 스승에게서 차와 그림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기란 bdbol@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6도 지중연화방대광명장엄

극락을 장엄하고 있는 연못에 핀 연꽃을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못 속에 핀 연꽃마다 향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여러 갈래의 구름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못 주위에는 각종 보석으로 장엄된 난간이 둘러져 있다. 이 도상은 <불설아미타경>의 4쪽 후반에 새겨져 있다.

"연못 속에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었으며,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 노란 꽃에서는 노란 광채,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 하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池中蓮華 大如車輪 靑色淸光 黃色黃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 香潔 舍利佛 極樂國土 成就如是 功德莊嚴)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연못에 핀 연꽃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 꽃송이마다 백천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뤄졌느니라.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 흰 빛깔에는 흰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 빛·노란 빛·붉은 빛·자줏빛 등 각기 광명을 발해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 한결 빛나고 밝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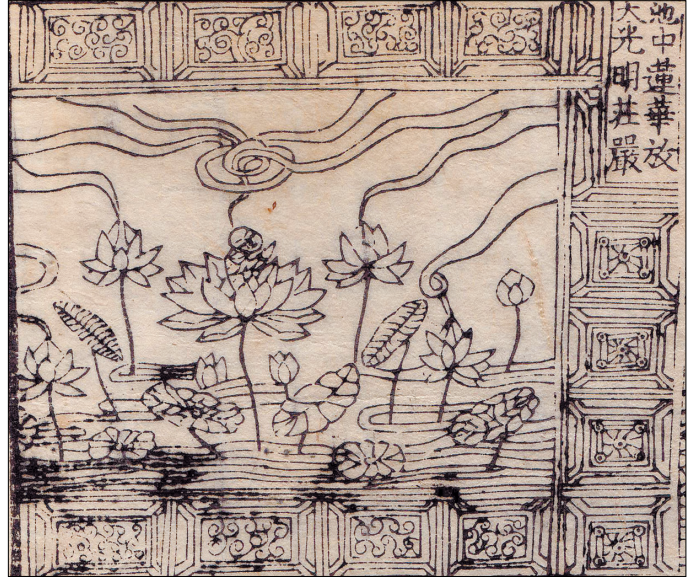
라. 하나의 꽃송이마다 36백천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또한 36백천억의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몸은 자금색으로 빛나고 상호는 뛰어난게 훌륭하시느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백천억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사방세계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에 안온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아름다운 연꽃으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연못을 다양한 꽃과 빛깔로 장엄하게 찬탄하는 삼화는 극락세계가 바로 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처음 접해보는 불자들은 너무 현란한 말의 잔치에 극락의 허구성만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의 경계가 깊어질수록 윤회의 세계를 믿게 되고 육도윤회 하는 우리의 끝없는 인연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안락의 세계를 꿈꾸게 된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불자라면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가 우리가 가고자하는 이상의 세계를 간절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는 과학적인 발전으로 극장뿐 아니라 우리의 인방에서도 눈의 한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면을 통해 신비의 세계를 체험해 보고 있

다. 이러한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불자라면 극락의 연못 속의 연꽃에서 피어나는 청색광명과 황색광명, 적색광명, 백색광명이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전개될 수 있는 지극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끊임없이 들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안락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 수레바퀴만한 연꽃에서 품어져 나오는 다양한 빛깔과 소리를 보고 듣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상을 해보자. 이러한 믿음이 어렵고 힘든 현실의 세계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아닐까.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6도 지중연화방대광명장엄(池中蓮華 放大光明莊嚴). 덕주사, 1572년 간행, 반각(半郭) 28.2×21.0cm.

www.buddhashopping.com

#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 A형-남/여 할인가 2,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 B형-남/여 할인가 2,1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 C형-남/여 할인가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부여,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www.naver.com

#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地藏경 2권,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 각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권이상 주문시 할인가 적용됩니다.

법화경(한문) 11~17호 할인가 4,200원(1권) 정가 6,000원(1권)	법화경(한글) 19~25호 할인가 3,500원(1권) 정가 5,000원(1권)	법화경(우리말) 34~40호 할인가 2,100원(1권) 정가 3,500원(1권)
---	---	--

한지집은 영가옷(남)/영가옷(여)/위패 30,000원 (100개)  
예수재함A (50개) 50,000원 (1박스)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동진기획·롯데쇼핑 (051) 515-8888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복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